

6. 15 공동선언의 기치아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통일을 앞당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서

인민생활대고조진군을 힘차게 다그치고있는 함흥시의 중요기업소들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인민생활대고조진군을 힘차게 다그치고있는 함흥시의 중요기업소들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2.8비날론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전망계획도앞에서 해설을 들으신 다음 수직방사직장, 견질작업반을 비롯한 기업소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과 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기업소의 로동계급이 비날론폭포를 쏟아내어 온 나라에 대경사를 안아온 그 기세, 그 기백으로 생산과 건설에서 계속혁신, 계속전진하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방사기들과 견질, 련조기들에서 쉬임없이 흘러나오는 흰눈같이 하얗고 명주처럼 부드러운 비날론섬유와 비날론솜을 기쁨에 넘쳐 바라보시며 비날론솜의 질이 날을 따라 좋아지고있다

고 하시면서 비날론로동계급의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거듭 높이 평가하시였다.

정성을 다해 비날론을 견질하고있는 리영숙을 비롯한 로동자들을 만나시여 담화를 나누시면서 우리 인민에게 질 좋은 옷감을 생산보장하기 위해 애쓰고있는 기업소의 로동계급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였다.

기업소에서 생산한 식초, 장판니스, 물감, 농약, 비날판, 비날론바줄 등 수십가지의 제품들을 보시고 그 질이 높다고 기

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2.8비날론련합기업소는 인민생활과 직결되어있는 기업소이므로 그 임무와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기업소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2.8비날론련합기업소는 우리 인민들에게 더 좋은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시려고 그토록 마음쓰신 위대한 수령님의 로고가 뜨겁게 깃들어있는 력사적인 공장이라고 하시면서 기업소의 로동계급이 온갖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 증산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우리 나라 주체공업의 본보기공장으로서의 위력을 남김없이 떨쳐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룡성기계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영접일군들과 인사를 나누신 다음 압축기직장, 대형기계직장을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눈부시게 비약하

는 주체공업의 위용을 상징하듯 거창하게 일떠선 집체같은 암모니아합성탑, 응축분리탑, 수소정제탑을 비롯한 대형설비들의 우람찬 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시면서 룡성의 로동계급이 자체의 힘과 기술로 현대적인 우리 식의 가스화대상설비들을 훌륭히 만들어낸데 대하여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가스화대상설비들의 성과적생산은 룡성로동계급이 지닌 자력갱생의 정신력이 낳은 고귀한 결실이라고 하시면서 불타는 애국의 열정을 안고 온갖 지혜와 정열

신과 비약을 일으키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대규모비료생산기지의 하나인 흥남비료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먼저 가스화공정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가스화공정도앞에서 해설을 들으신 다음 건설장을 돌아보시면서 공사추진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2 면 으 로 계 속)



을 다 바쳐 선군시대와 더불어 길이 전하여질 위대한 기적을 창조한 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강성대국의 대문을 앞장에서 열어갈 불굴의 의지를 안고 충천한 기세로 낮과 밤이 따로없는 긴장한 전투를 벌려온 룡성의 로동계급이 당앞에 다진 결의를 빛나게 실천하였다고 하시면서 당이 바라는것이라면 그 어떤 어려운 과업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그들의 혁명적인 투쟁기풍을 거듭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우리나라의 위력한 대상설비생산기지의 하나인 룡성기계련합기업소는 우리 당의 강성대국건설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대단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고 하시면서 기업소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기업소의 로동계급이 혁명의 불은기를 높이 추켜들고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혁명적대고조의 앞장에서 끊임없는 혁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서

인민생활대고조진군을 힘차게 다그치고 있는 함흥시의 중요기업소들을 현지지도하시였다



(1 면 에서 계속)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드넓은 건설장에 선군조선의 위용떨치며 거창하게 일떠선 웅장한 구조물들과 집채같은 대형설비들을 보시고 건설자들과 지원자들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방대한 건설공사를 성과적으로 추진하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애국의 구슬땀을 바쳐 나라의 만년재부를 마련해가고있는 그들의 투쟁성과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홍남의 로동계급과 건설자, 지원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홍남땅에 또 하나의 자력갱생의 위대한 창조물이 일떠섰을뿐

아니라 승리의 개가를 울릴 시각을 눈앞에 바라볼수 있게 되였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빛나는 위훈을 거듭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홍남비료련합기업소의 가스화공정은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조업을 앞당기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이어 물전해직장을 비롯한 여러 생산공정들을 돌아보시면서 기술개건정형과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새것을 지향하여 끊임없이 비약하고 전진하는 기업소의 전변과

비상한 애국열의를 안고 전례없는 생산적양양을 일으키고있는 로동계급의 투쟁모습을 보시고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승리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충천한 기세로 강성대국건설위업실현을 위하여 헌신분투하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홍남의 로동계급이 우리 당의 과학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생산공정들을 현대화, 과학화하는데서 선봉적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창조적지혜와 협조를 강화하여 어려운 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비료생산을 늘이는데서 커다란 진전을 이룩하였다고 하시면서 이들의 자랑스런 투쟁성과는 선군혁명의 불길속에서 천백배로 역세여진 우리 인민의 위대한 정신력에 대한 일대 시위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농업생산을 높은 단계에 끌어올리는데서 홍남비료련합기업소의 위치와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기업소앞에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홍남의 로동계급은 지난 기간 비료로

당을 앞장서 받들어온 결사관철의 투사답게 사회주의건설에서 무비의 헌신성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였다고 하시면서 비료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킴으로써 나라의 농업발전에서 적극 기여하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함흥시는 의식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중요한 몫을 맡고있는 큰 공장들을 많이 가지고있으므로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선봉적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본사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서

신흥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신흥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공장의 생산전망에 대한 해설을 들으신 다음 증산의 불길 세차게 타번지는 여러 직장들을 돌아보시면서 기술개건과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줄지어 늘어서있는 새로 만든 기계들의 구조와 성능, 작용원리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시고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창조적지혜

를 합쳐 경제강국건설에 이바지할 현대적인 기계들을 많이 생산하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당의 결정지시를 언제나 앞장에서 관철하여온 공장의 로동계급이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현대적인 기계들을 많이 생산공급함으로써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실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하시면서 지난 기간 그들이 이룩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20여년전 생산현장에서 만나시었던 박춘남, 박춘순 쌍둥이

자매들을 몸가까이에 불러주시고 사업과 생활에 대하여 따듯이 물어주시며 처녀시절부터 오일까지 30년간 용접공으로 일하면서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불타는 열정과 애국의 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는 그들의 소행을 높이 치하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신흥기계공장은 나라의 기계제작공업을 세계적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고 하시면서 공장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후방사업은 곧 정치사업이라고 하신 아버지수령님의 교시를 명심하고 로동자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에 계속 큰힘을 넣어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시면서 공장의 로동자들을 위해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시는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김일성동지의 후손답게 투쟁하며 창조하는 신념을 간직하고 수령님처럼 뜻이 원대하고 리상이 높게, 수령님처럼 배심이 세고 락관에 넘쳐 남들이 못한다는것도 기어이 해내야하며

는 불굴의 기질, 무엇을 하나 창조해도 세계를 들었다놓게 하는 담대한 기상, 모든 일을 후대들이 덕을 볼수 있게 완전무결하게 해놓는 혁명적일본새로 대고조시대의 순간순간을 빛내어나가자고 뜨겁게 호소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공장의 로동계급이 앞으로도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서 선봉적역할을 수행하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서

홍남비료련합기업소와 2.8비날론련합기업소의 종업원예술소조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홍남비료련합기업소와 2.8비날론련합기업소의 종업원예술소조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서 관람석에 나오시자 전체 관람자들은 조국의 부강발전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정초부터 불철주야의 초강도강행군길을 이어가고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송고한 경의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공연무대에는 대화시 《사랑의 평

가》, 《장군님 마중가신 길》, 녀성독창 《아버지장군님 더 잘 모시리》, 가무이야기 《내 나라의 자랑높은 비날론일세》, 선동이야기 《홍남의 기적소리》, 막간극 《뉘지 말자》, 혼성3체창이야기 《곧바로 가자》, 독창이야기와 선동 《반일전가》, 남성독창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 복제창 《선군순리 옹헤야》, 복과 노래 《돌과하라 최침단을》, 취주악과 합창 《승리의 길》, 합창시와

합창 《발걸음》, 《대를 이어 총성을 다 하렵니다》 등 여러가지 형식의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공연이 끝나자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라 장내는 불도가니마냥 끓어번지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답례를 보내시고 공연성과를 축하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홍남비료련합기업

소와 2.8비날론련합기업소의 예술소조원들이 자기들의 생활을 그대로 진실하게 반영한 인식교양적의의가 큰 작품들을 가지고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공연성과를 높이 평가하시고 그들에게 감사를 주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혁명적인 예술은 사람들을 정서적으로 감동시키고 그들의 사상과 정신을 발동하여 혁명투쟁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위력한 수단이라고 하

시면서 군중문화예술활동을 더욱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당과 수령의 위업을 앞장서 받들어나가는 우리의 로동계급이 인민생활대고조진군의 돌격대, 선군시대 새 문화의 창조자들답게 앞으로도 혁명의 북소리를 높이 울리며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창조해나가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조선인민군 제6556군부대 지휘부를 시찰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조선인민군 제6556군부대 지휘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군부대 지휘부에 도착하시자 천지를 진동하는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오르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를 위하여 한목숨 바쳐 싸우자!》, 《총포탄!》, 《결사옹위!》라는 우렁찬 구호의 함성이 맑고 푸른 2월의 하늘가로 메아리쳐갔다.

김정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동행하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 영접보고를 받으신 다음 작전지휘실에 들리시어 부대의 임무 수행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 군부대의 전체 장비들이 적들의 침략책동을 예리하게 주시하며 경계근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의 수고를 치하하시고 부대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 군사연구실들을 돌아보시면서 지휘관들의 훈련정형을 알아보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 부대에서 조선로동당의 주체적인 군사전법을 깊이 연구하고 철저히 구현할수 있게 군사연구실들을 잘 꾸리고 작전지휘능력을 높이기 위한 훈련을 실속있게 벌려 모든 지휘관들

을 현대전의 그 어떤 어려운 전투임무도 능숙히 조직지휘할수 있는 높은 작전전투 조직과 지휘능력을 갖춘 유능한 지휘관들로 준비시키고있는데 대해 만족해하시면서 혁명적인 훈련기풍을 철저히 세워 모든 지휘관들이 현대전의 요구에 맞는 지휘능력을 소유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 군인회관을 비롯한 문화교양시설들을 돌아보시면서 군인들에 대한 정치사업진행정형을 료해하시였다.

군인회관을 문화교양거점답게 잘 꾸리고 정치사업을 참신하고 심도있게 진행하고있으며 모든 군인들이 충분한 문화정서

생활을 하고있는데 대해 기뻐하시면서 사상사업에 언제나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 군인들을 사상의 강군, 신념의 강군으로 키워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 공원처럼 알뜰하게 정리된 지휘부의 구내를 걸으시며 부대관리실태를 알아보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 군부대에서 전투정치훈련은 물론 부대관리를 비롯한 모든 면에서 참으로 눈부신 개진을 가져왔다고 하시면서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해 조선로동당과 운명을 같이하며 계급투쟁의 일선에서 근위대의 용맹을 떨쳐온 부대의 자랑찬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이어 식당, 취사

장, 부식물창고 등 후방시설들을 돌아보시면서 군인들의 생활에 깊은 관심을 들리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부대의 지휘관들이 후방사업에 대한 옹호관점을 가지고 군인들에게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준데 대하여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군부대 군인들이 조선로동당의 선군령도를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혁명의 기둥, 강력한 주력군으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훌륭히 수행해나가기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시였다.

본사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조선인민군 정성의학종합연구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군인건설자들이 새로 건설한 조선인민군 정성의학종합연구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김정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동행하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연구소책임일군들의 안내를 받으시며 연혁실을 돌아보신 다음 새로 꾸린 약품검정소, 의약품연구소, 전자도시설, 문화회관을 비롯한 연구소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과학연구사업정형과 약품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최첨단의 실험기구들을 그뿐하게 갖춘 각종 연구실, 실험실

들과 현대적인 제약설비들로 장비된 생산 공정들을 보시면서 정성의학종합연구소가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게 훌륭히 꾸려짐으로써 우리의 주체적인 제약공업의 토대가 더욱 튼튼히 축성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연구소의 과학연구사업진행정형을 자세히 알아보시고 모든 과학자, 연구사들이 우리 당의 과학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지혜와 정열을 다 바침으로써 새로운 약품들을 많이 연구개발한데 대하여 대단히 기뻐하시면서 그들의 수고를 치하하시였다.

연구소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여러가지 전염병들과 질병들을 치료할수 있는 의약

품과 약전들을 개발하여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는 튼튼한 과학기술적토대를 마련한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하시면서 인민에 대한 그들의 헌신적인 복무정신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정성의학종합연구소에서 세계적수준의 여러가지 의약품들을 만들어냈을뿐아니라 세계를 딛고 올라설수 있는 최첨단기술을 소유한것은 이곳 일군들과 과학연구집단이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을 세계를 보면서 과학연구성과로 강성대국건설에 이바지할 일념으로 심장을 불태운데 있다고 하시면서 이 자랑찬 성과는 과학기술을 경제강국건설의 생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한 또 하나의 뚜렷한 실증으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연구소에서 생산한 여러가지 효능높은 의약품들을 보시고 약품의 질이 대단히 높으며 특히 인민들이 임의의 조건에서 사용할수 있는 상비약품들을 잘 만든데 대하여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나라의 제약공업발전에서 정성의학종합연구소가 차지하고있는 위치와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연구소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제약부문의 모든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치료예방기관들에 더 많은 의약품을 생산공급함으로써 강성대국에서 살게 될 우리 인민들이 무병장수하여 60청춘에 90환갑을 노래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자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정성의학종합연구소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조선로동당과 수령에 대한 높은 충성심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의 정신을 가지고 조선로동당의 보건정책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제약공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군들과 함께 은하수 《설명절음악회》를 관람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조선로동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군들과 함께 은하수 《설명절음악회》를 관람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극장 관람석에 나오시자 우렁찬 환호를 울리는 관람자들은 새해 정초부터 초강도강행군으로 인민생활대고조진군을 진두지휘하시며 끊임없는 헌신과 로고를 바쳐가고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천만군민의 다함없는 흠모의 정을 담아 삼가 설인사를 드리

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관람자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며 설명절을 맞는 그들을 열렬히 축하하시였다.

김정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음악회를 함께 보았다.

에국가의 주악으로 시작된 음악회무대에는 합창 《우리 민족 제일일세》, 《강성부흥아리랑》, 녀성독창 《멋있는 사람》, 《우정의 노래》, 섹스폰6중주 《우리 집

사람》, 녀성3중창 《사회주의 너를 사랑해》, 남성독창과 남성방창 《군밤라평》, 남성5중창 《귀항의 노래》, 녀성6중창 《황금나무 능금나무 산에 심었소》, 관현악 《양산도》, 녀성기악4중주 《준마처녀》, 노래편곡 《어느 사단 출신인가요》, 《영웅병사와 고향처녀들》, 《군가에 발을 맞추자》, 혼성2중창 《아름다운 생의 자옥 새기여가자》, 민족기악과 바얀을 위한 관현악 《통일무지개》, 합창 《위대한 내 나라》, 《전선에서 만나자》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울랐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답례를 보내시고 공연성공을 축하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은하수관현악단의 예술인들이 혁명적인 창조기풍을 발휘하여 우리 인민의 지향과 념원을 그대로 반영한 훌륭한 음악회를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공연성공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은하수관현악단이 자기의 고유한 특성을 옹기 살리면서 우리 인민의 혁명적열의와 풍부한 감정정서에 맞는 작품들을 가지고 예술공연활동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인민의 사랑을 받는 예술 집단으로 되었다고 하시면서 앞으로도 예술창조활동을 과감히 벌려 존엄높은 선군 조선에 강성대국의 문명을 달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더욱 힘있게 고무추동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조선인민군 제324대련합부대에 예술선전대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조선인민군 제324대련합부대에 예술선전대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관람석에 나오시자 전체 관람자들은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진두에 서시어 끊임없는 현지지도 강행군길을 이어가시며 우리 군대와 인민을 승리의 한길로 현명하게 령도하고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최대의 경의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예술선전대원들은 녀성5중창 《영광을 드리자 위대한 우리 당에》, 녀성독창과 방창 《매혹과 흠모》, 재담 《귀담아 듣자》, 북과 노래 《훈련장의 철참은 좋다》, 선동극 《진정을 바쳐갈 때》, 녀성3중창 《일심단결닐리리》, 시와 이야기 《절대로 습관되지 말자》, 남성독창 《단숨에》, 녀성2중창과 기타병창 《공격적이다》, 시와 합창 《우리의 행군길》 등 여러가지 형식의 다채로운 종

목들을 무대에 올렸다. 공연이 끝나자 아버지장군님을 우리러 터치는 열광의 환호성으로 하여 장내는 세차게 끓어번지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답례를 보내시며 공연성공을 축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대련합부대에 예술선전대원들이 우리 군인들의 무한

대한 정신력과 고상한 도덕풍모, 보람찬 군무생활을 그대로 진실하고 생동하게 반영한 인식교양적의의가 큰 작품들을 가지고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공연성공을 높이 평가하시고 감사를 주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출연자들이 공연을 통하여 투철한 수령관과 혁명관을 지니고 량만과 회열에 넘쳐 역세계 전진하는 영웅적조선인민군의 참모습을 잘 펼쳐보였

다고 하시면서 선군시대의 새 문화창조자들인 그들의 혁명적인 창조활동을 치하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군인들에 대한 사상교양에서 커다란 감화력과 높은 호소성을 가지고있는 예술선전은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혁명적이며 전 투적인 예술선전사업을 더욱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본사기자

상 승 의 궤 도 를 따 라

자기의 앞날에 대한 리상과 포부를 안고 희망의 해, 새로운 번영의 해 2011년을 맞이한 온 나라 인민들에게 있어서 조국과 숨결을 함께 한 감회 또한 깊다.

눈부신 조국의 어제가 있어 벽천 오늘이 있고 광명한 래일이 있는바이다.

반세기이상이나 외세의 끊임없는 도전과 압살책동에 맞서 사람보다 총알을 먼저 만들어야 했던 우리 인민이 마침내 강성대국의 문어구에 이르렀고 이제는 경제강국건설에 주력하며 인민생활대고조의 불을 활활 지펴가고있다.

올해 공동사설의 내용도 다시한번 경공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키자는것으로 일관되어 있다.

두해전 12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경제전선에서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표는 나라의 기본경제명맥을 활성화하고 전반적 경제를 상승계도로 확고히 올려세우며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고돌아가는것이라고 하시었다.

상승의 궤도는 지난 10여년세월 역경을 순경으로, 화를 복으로 만드시며 력사의 기적창조로 강성대국건설의 새 시대를 열어놓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웅대한 구상과 확고한 결심, 드림없는 의지가 그대로 비친로정도이고 설계도이기도 했다.

그이의 선견지명의 비범한 예지와 령도의 현명성을 시대와 현실, 다시 말하면 본격적인 상승단계에 들어선 2009년이 뚜렷이 확증했다.

자제의 힘과 기술에 의한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발사, 제2차 지하핵시험에서의 성공, 성장에서의 주체철생산체계의 완성과 CNC기술의 첨단들과, 키톨을하며 우주측

순처럼 일떠선 냉원발전소와 원산형 냉원발전소, 미루벌물길, 만수대거리 살림집과 같은 기념비적창조물건설, 남흥가스화공사의 완공과 중요공장들의 현대화 추진, 방직공업과 식료가공공업을 비롯한 경공업부분의

생산도태와 잠재력의 훨씬 장성으로 강성대국의 대문을 두드리는 사변들이 연해연방 꼬리를 물었다.

우리 말에는 장훈을 부르다라는 말이 있다. 장훈에 비장훈을 치는 상승만을 생각하며 최후승리를 기록하기전에는 강행군속도를 순간도 늦출수 없다는 강毅한 의지를 지니시고 열차를 자신의 집삼아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초강도강행군, 빨치산 식강행군으로 대고조진군을 진두에서 이끄신 장군님의 애국헌신에 의해 이룩된 고귀한 결심이었다.

성광과 김철, 단천제련소, 룡양광산, 수봉발전소, 회천제사공장, 회령기초식품공장, 대동강달리공장, 신창양어장, 라조목장, 소목장, 돼지공장, 닭공장을 비롯한 물고기생산기지들과 축산, 가공기지를 비롯한 전국도처의 200여개의 단위들이 건설과 생산장성, 현대화를 위한 그이의 정력적인 령도의 대장정이 새겨졌다.

지금도 사람들의 기억속에는 지난세기 50년대말 평양건설에서 일어난 기적을 상징하는 《14분애 한세대씩 조립》이라는 말이 생생하다. 그러나 오늘 회천발전소건설장에서 창조되는 일본새나 속도는 상상을 초월하고있다. 제일 어려운 공사의 하나인 인제기초공크리트치기를 비롯하여 어느때 같으면 몇년은 실패할려야 할 방대한 량을 단 5개월동안에 끝낸것을 비롯하여 눈부신 기적의 창조되고있다. 그래서 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신 장군님께서는 《희전속도》라고 하시었다.

강성대국을 향해 자기의 힘과 지혜, 자기의 인내와 노력으로 끝까지 박차를 가하면 통장훈을 부를 그날이 온다.

경공업의 비약적발전을 위한 도약대를 마련하고 인민생활향상의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은 지난해의 사변들이 확증하고있다. 경공업과 화학공업, 금속공업을 비롯하여 모든 부문에서 현대화가 추진되고 주체철, 주체섬유, 주체비료를 팡팡 생산할수 있는 휘황한 전망이 열리

고 려성강청년2호발전소를 비롯한 수백개의 중요대상들이 새로 일떠섰으며 도처에 회한한 선경들이 펼쳐져 인민들이 그처럼 바라던 강성대국의 리상이 전면적으로 실현되는 확고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수수만년 밀물과 썰물만이 엇바뀌던 서해안지대를 인간의 의지와 리상대로 풍작을 이루는 우토로 전변시킨 대조도간석지건설완공은 상승하는 조세의 기상을 세계에 보여준 기적이다.

지난해의 상승은 이미 해놓은 일들은 초저변이나 갈고 초대변은 이제부터 일어날것이라고 락관하시며 대비약, 대기적의 목표를 정해주시고 전체 인민을 그 실현으로 헌명하게 이끄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탁월한 령도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지난해 1월에만도 그이께서는 발전소건설장들과 야금기지, 기계제작기지들과 광산, 제련소, 돼지공장, 수산기지, 식료공장들을 비롯하여 20여개의 단위들을 현지지도하시었다. 한해가 다 저무는 12월에는 평양과 함흥, 무산과 단천, 회령과 평진, 회천을 비롯하여 무려 30여개의 단위들을 찾으시어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대고조에 끊임없는 박차를 가하도록 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최신시설비들로 꾸러진 대흥단감자가공공장을 찾으시어 생산공정을 더 현대적으로 꾸러 제품의 다양화를 실현하도록 이르시었고 룡성식료공장에 일떠선 최첨단수준의 간장직장을 돌아보시면서도 새것을 계속 창조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최첨단을 돌파하라!》,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구호에 장군님의 령도따라 상승계도로 줄달음치는 조선의 기상과 본래가 그대로 비껴있다고 해야 할것이다.

오늘날 세계적인 경제위기, 금융위기는 나라와 민족들을 휩쓸고 여러 지역에서 외세의 간섭과 전횡, 집권세력의 부패무능등으로 국가와 민족, 종족간의 류혈참극과 리련쟁

탈전이 심화되고있으며 그에 따른 사회정치적불안정과 무질서의 악순환속에 초상난 집의 초혼소리와 불난 집의 아우성, 도적을 쫓는 웨칭의 《3악성》이 인류의 간담을 서늘케 하고있다.

강성대국건설에 총력을 기울이는 공화국인민들에게 있어서 평화롭고 안정된 환경은 오늘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한 문제이나 내외호전세력의 책동으로 지난해 조선반도의 정세는 전쟁국면으로까지 치달았었다.

그러나 자립으로 위력한 조선의 경제는 그 모든 통과속에서도 끄떡없이 전진하고있다. 중국의 《인민일보》는 조선인민은 자기의 힘과 지혜로 국가건설의 새 력사를 창조하며 강성대국의 목표를 향해 힘차게 전진한다고 했고 로씨야신문 《쁘르티오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 적대세력들이 갖은 비난을 일삼고 경제적봉쇄와 군사적 위협책동을 강화하고있지만 조선은 사회주의건설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있다, 령도도 크지 않은 조선이 제국주의세력의 끊임없는 압살책동속에서 선진국들도 달성할수 없는 성과를 거두고있는것은 세계적인 사변이라고 강조했다.

재로조선공민중앙협회 회장 장순정동모는 지금 고국에서 놀라운 사변들이 편이 편이 일어나고있는것은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김정일장군님의 고귀한 령도의 결심이라고 강조했다.

온 나라 인민은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어 비약과 기적, 사변으로 가득찬 어제와 오늘이 있고 그 길에 강성대국의 래일이 있다는것을 현실로 확신하고 꿰루로 걸감하고있다.

절세의 애국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탁월한 령도가 있고 그이의 뜻을 따르는 천만사람의 애국충정의 정신력에 의해 강성대국의 실체는 눈앞에 바야흐로 다가오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리 설

새 것 의 창조와 자 력 경쟁

주체90(2001)년 4월이었다.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용성기계연합기업소를 찾으시었다.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고 생산설비들도 일일이 보신 그이께서는 공장에서 새로 제작했다는 압축기계를 보시었다. 그런데 새로운 압축기는 모양이나 능력에서 기존의 설비보다 별로 크게 달라진것이 없었다. 그이께서 보신 직관에도 있는 압축기설계도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것을 그대로 본따 만든 것이었다.

그 모든것을 대변에 가능하신 장군님께서는 공장사람들에게 새로운

고 귀 한 평 가 와 치 하

지난해 12월 어느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회천련하기계종합공장을 찾으시었다. 그이께서는 새로 꾸러진 CNC조립장, CNC가공장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기술계진과 생산실태를 알아보시었다.

공장은 생산공정에 CNC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고 에너지를 절약형건물로 일신하여 새형의 CNC공작기계를 생산하는 세계적인 공작기계공장, 21세기의 표본공장으로 되고있다.

그날 새 기계제품들을 보신 장군님께서는 애국에 불라는 공장의 로동자들이 CNC기술의 패권을 확고히 틀어쥐고 고속화, 정밀화, 지능화된

압축기계를 개발하려고 한다는것을 많이 생산하는것이 중요하다고, 그런데 이곳에서 만드는 압축기는 다른 나라의것을 모방하여 만든 뒤떨어진것이라고 하시면서 발전된 나라들에서 만드는것과 같은 현대적인 압축기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었다.

현대과학기술에 기초하여 자력경쟁하면서 새것을 창조하는것이 최첨단물과진이라는것을 의미심장하게 새겨주시는 그이의 가르치심이였다.

하여 그들은 이듬해에 자체의 힘과 기술로 현대적인 새 압축기제작과 다량생산에 성공하게 되었다.

경 제 강 국 건 설 의 생 명 선

지난해 12월 어느날 그이께서 새로 건설된 어느 한 위생용품생산기지를 찾으셨을 때였다.

모든 생산공정이 최신설비로 현대화되고 여러가지 위생용품들이 다량생산되고있는 현장에서 공장의 생산능력과 설비운영실태, 생산정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신 그이께서는 인민생활향상에서 공장이 맡고있는 임무와 역할에 대해 강조하시면서 질 좋은 제품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시었다.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빵을 먹도록 해야 한다고, 장차 우리 인민들에게 세계적으로 가장 질 높은 빵을 만들어 먹여야 한다고 하시었다.

빵이라고 하면 소다빵보다 맛도 좋고 영양가도 높으며 소화가 잘되고 부근부근해서 먹기도 좋은 효모빵이 더 낫다고 하시며 몸소

공장의 리회숙지배인은 그날 장군님께서 맛 좋고 영양가 높은 식료가공식품을 더 많이 만들어 인민들을 더 많이 먹도록 하여 온 나라에 《강성부흥아리랑》의 노래소리가 더 높이 울려 퍼지게 하자고 생산자들을 고무 격려했었다고 말하였다.

인기있는 상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제품이 많을수록 그만큼 사람들의 생활은 보다 윤택하고 문명해질것이다.

우리는 선홍식료공장을 돌아보는 기회에 경제강국건설은 곧 인민생활향상이라고 하신 장군님의 숭고한 뜻과 나라의 문명과 발전의 길은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을 세계를 보는 자존의 정신, 자기의 힘, 자기의 지혜, 자기의 손으로 열어나가야 한다는것을 다시금 절감했다.

리 금 진

《선군정치의 뿌리는 주체사상이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명언 《선군정치의 뿌리는 주체사상이다》는 선군정치가 주체사상의 원리에 기초하고 주체사상을 구현하는 실천속에서 나온 정치방식이라는 의미를 담고있다.

주체사상이 나라와 민족, 인민대중의 생명인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는것을 근본 목적으로 내세운다면 선군정치는 그를 구현하여 군사정권의 원칙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를 가장 철저히 옹호하고 실현하는 정치방식이다.

자주독립국가의 첫째가는 정표이며 제일생명인 정치적자주성은 강력한 총대에 의해 담보된다.

선군정치는 불패의 군력을 마련하여 제국주의세력의 그 어떤 도전도 과감히 제압하며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빛나게 실현한다.

총대중시의 선군정치에 의해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이 굳건히 담보되고 있다.

선군정치는 경제와 군사 등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사상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고있다.

사회생활의 물질적기초인 경제에서 자립해야 정초에서의 자주와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도 더 잘 구현할수 있고 인민들에게 유익하고 문명한 물질문화적생활을 마련해줄수 있다.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새로운 경제건설로선에 따라 국방공업을 위주로 하는 국가경제력을 일층 강화하여 경제활성화의 길을 열었고 오늘날은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해 총진군하고있다.

주체사상이 밝힌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한 선군정치에 의해 인민군대는 사상과 신념의 강군으로, 주체적인 전략전술을 가진 무적의 정예대로로 장성 강화되었으며 공화국은 현대적인 공격수단과 방어수

단, 그 어떤 군사장비와 전투기술기재들을 마음먹은대로 만들어내는 위력한 국방공업을 가진 불패의 군사강국으로 위용 떨치고있다.

세계적판도에서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선군정치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공감하고 이를 동경하는것은 시대적 추세로 되고있다.

외국의 한 인사는 주체사상은 백과사전적인 사상이로서 그 어떤 시대에도 다 적용되는 영원한 현재형의 학설이라고 경탄한바있다.

주체사상의 생명력이 영원 하듯이 그 뿌리를 둔 선군정치의 정당성과 생활력도 영원한것이다.

동 성 희

사람이나 양말과 같은 대중식품, 일반소비품 하나의 맛과 질을 놓고도 사람들의 생활수준을 어느 정도 알수 있다.

얼마전 우리는 선홍식료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보면서 인민생활향상의 일면을 짐작할수 있었다.

10여년전에 조업한 공장은 최근에 이르러 번듯하게 개건

에 대해 높이 평가하시었다. 그리고 가지각색의 사탕, 파자, 술, 빵, 강정을 비롯한 제품의 맛과 질, 상표와 포장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헤아려보시었다. 그이께서 생일상이나 결혼상에 놓으면 면을 짐작할수 있었다.

우리가 돌아본 탄산음료, 에스키모생산현장은 지난해 12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몸소 현지지도하신곳이었다.

그날 그이께서는 질 좋은 제품들이 위임없이 생산되는것을 보시고 공장의 현대화수준과 그에 따르는 갖가지 제품의 질 그리고 생산장성

인민들의 기호와 수요를 헤아리시어

장군님께서 자신의 탄생일마저 잊으시고 현지지도의 길을 위임없이 이어가시면서도 갖가지 음식이 놓인 생일상, 결혼상을 받아안고 기뻐할 인민들의 모습, 청춘 남녀들의 모습을 그려보시였으리라고 생각하니 가슴후더움을 금할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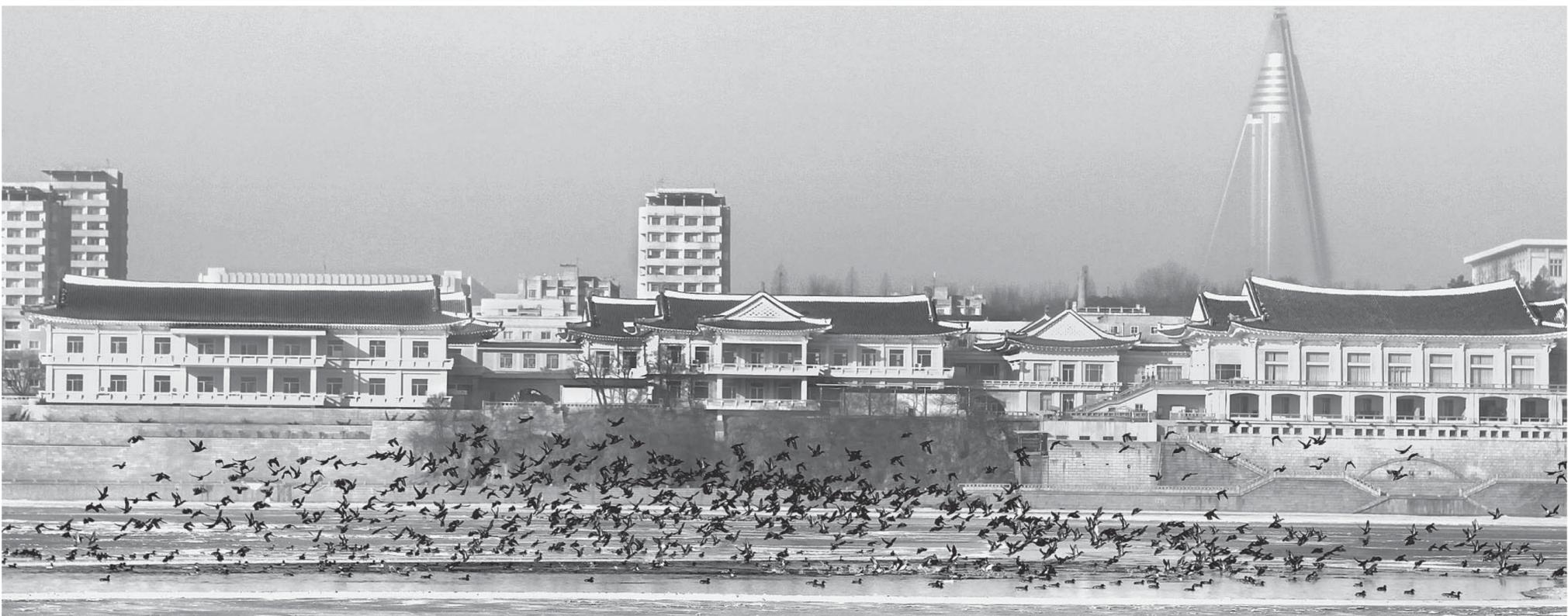
나날이 향상되는 인민들의 식생활문화에 연어나 같은 관심을 돌리시는 그이께서는 몇해전에도 빵의 가지수를 늘이고 질도 높여 어디에

그것을 만드는 방법도 알려 주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들이 다른 나라의 우수한 빵제조법도 터득하도록 이르신 장군님입니다.

장군님의 세심한 관심속에 오늘 《몽라빵》, 《선홍빵》 등 빵의 가지수가 훨씬 늘어나고 질도 높아져 인민들의 식생활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고있다.

산삼술, 막걸리와 같은 《선홍》제품들도 우리의 깊

은 관심을 모았다.



물 오 리 때 날 으 는 아 름 다 운 퍼 동 강 반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의 발현

얼마전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가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공화국의 정부, 정당, 단체 연합성명이 발표되고 그 실천적조치를 현이 취해지고있는 가운데 이번에 조국전선 중앙위원회의 호소문이 발표된 것은 북남관계 개선을 위한 평화와 통일의 밝은 앞길을 열려는 공화국의 의지를 다시금 뚜렷이 보여주는 것이다.

6.15시대와 더불어 활기있게 전진하던 북남관계가 지난 수년간 최대 악화되어 포탄이 오가는 험악한 정세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겨레의 비극이고 불행이 아닐 수 없다.

하기에 이 엄중한 난국을 타개하고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기 위해 공화국은 년초부터 북과 남 사이의 폭넓은 대화와 협상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 이것은 민족과 평화번영을 위한 중대한 결단이고 애국애족의 립장의 발현이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공화국의 성

의있는 대화제에 전제조건을 앞세우면서 대화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불장난소동을 계속 감행하였는가 하면 극단한 편견을 가지고 어느것은 되고 어느것은 안된다는 식의 우롱과 모독도 서슴지 않고 있다. 또한 민간인들의 북남대왕과 접촉에 빗장을 걸어 잠그고 대화와 협상을 막고 대화와 협상을 다시금 강력히 촉구한 것이다.

이런 실정에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는 호소문을 발표하여 대화와 협상을 다시금 강력히 촉구한 것이다.

호소문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대화와 협상은 전쟁을 막고 대화를 해소하며 북남관계를 푸는 유일한 방도이다.

여기에서도 실권과 책임을 가진 당국대화를 빨리 진행하는 것이 특별히 긴요한 문제로 나서고 있다. 지금

민족의 사활과 관련되는 수많은 중대사들이 해결을 기다리고 있고 그 대부분이 당국이 나서서 풀어야 할 문제들이다.

대화과 협상의 마당은 이미 마련되었으며 마주앉아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주고받을 문도 열려 있다.

호소문은 오늘의 엄중한 난국을 타개하는 데서 정치인들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하면서 공화국의 최고인민회의와 남조선국회사이의 의원접촉과 협상을 진행할 때 대한 새로운 제의를 내놓았다.

이 땅에 태를 묻고 사는 어느 정치인도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오늘의 불행과 전쟁위험을 의면해서는 안된다.

북과 남의 정치인들은 계급과 계층, 정파의 리익을 대변하는 정치인이기 전에 민족을 위한 정치인이 되어야 하며 시대와 민족에 지닌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국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

이다.

오늘은 민족의 지향과 절실한 요구는 북과 남사이의 대결상태를 하루빨리 끝장내고 평화와 통일변영의 새시대를 안아오는 것이다. 국회는 온 겨레의 이러한 목소리와 민심에 귀를 기울이고 북남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그러자면 최고인민회의와 남조선국회사이의 의원접촉과 협상이 하루빨리 진행되어야 한다.

오늘의 난국을 타개해나간다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진보이든 보수이든 가리지 말고 모두가 뜻과 마음을 합치고 민족을 위한 대화의 마당에 적극 나서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뜨거운 애국충정과 통일의지로 만년을 뚫고 올해에 거어 자주통일과 평화변영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감으로써 조선민족의 존엄과 슬기를 세계민방에 떨쳐야 한다.

본사기자 윤현주



조선반도에 조성된 엄중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하는 것은 현시기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초미의 문제이다.

화해와 협력에 호르던 북남관계는 지난 3년간 과거의 대결상태로 다시 돌아가고 그것이 격화되어 나중에는 쌍방간에 포탄이 오가는 엄중한 정세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사태는 민족의 안전을 심히 위협하고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에도 막대한 해독을 끼치고 있다.

하기에 얼마전 공화국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장은 조선반도에 조성된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북남고위급군사회담을 개최할 때 대한 공개서한을 남조선 국방부 장관에게 보내었다. 이것은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우리 겨레는 물론 세계평화에 호인민들의 한결같은 지지와 환영을 불러일으

킨 것이다.

지난 시기 북과 남의 군사당국은 북남사이에서 제기된 군사적 문제들을 놓고 허심탄회하게 마주앉아 그 해결을 본 좋은 전례들을 가지고 있다.

6.15공동선언발표후 북과 남은 5차례에 걸치는 북남장

령급군사회담을 통하여 북남사이에서 비방중상과 상대방을 자극하는 행동을 일체 중지할 때 대한 문제들을 협의하고 실천에 구현하였으며 금강산 및 개성공업지구에서 벌어지는 경제협력과 교류

하였다.

그러나 지난 3년간 북과 남사이에서 대결이 격화되면서 군사적 긴장조치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전쟁분위기가 고조되는 엄중한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다.

이 이루어질 수 있다.

민족의 대업을 위해서는 어제보다 오늘이 중요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귀중한 것이다.

지금 온 겨레가 조만간 열리게 될 북남고위급군사회담이 잘 진척되어 긴장완화와 평화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합의와 조치들이 취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회담에 어떤 립장과 자세를 가지고 참가하는가 하는 것이다. 대결관념이 벗어나 민족전체의 리익과 평화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보장하는 원칙에서 성의있게 회담에 임하고 좋은 결실을 보아야 할 것이다.

리 어 금

대대로 한포를 이어온 우리 민족이 서로 적대시하고 대결하면 녹아날 것은 우리 겨레뿐이다.

대결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수록 당사자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마주앉아야 군사적 긴장상태를 가지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좋은 합의의

긴장상태의 해소는 초미의 문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에서 남조선국회에 편지를 보내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2일 남조선국회에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가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에서 친명한 의원접촉과 협상을 제기하는 편지를 보내었다.

편지는 첨예한 조선반도정세를 완화하고 북남관계를 개선하며 평화와 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로부터 북측 최고인민회의와 남조선국회사이의 의원접촉과 협상을 제의한데 대해 언급하고 이 땅

에 태를 묻은 민족의 구성원이라면 그가 누구이건 오늘의 엄중한 사태를 절대로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편지는 민심을 대변하는 국회는 마땅히 북남관계개선과 대화를 한결같이 옹호하고 있는 온 겨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북남사이에서 군사회담이 개최되게 된 조건에서 우리 최고인민회의와 남조선국회가 자기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마주앉는 것은 너무나 용당

하고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편지는 남조선국회가 우리의 성의있는 제의와 호소에 적극 호응해나오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한편 조선사회민주당과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민족화해협의회, 6.15북측위원회를 비롯한 사회단체에 군사회담 등에서 북남대화제안에 호응해나설 것을 호소하는 편지들을 남조선의 여야정당들과 단체들에 보내었다.

남조선의 야당들과 각계 인사들 무조건적이며 전면적인 대화를 촉구

얼마전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가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통해 공화국최고인민회의와 남조선국회사이의 의원접촉과 협상을 가질 것을 제기한데 대해 남조선의 야당들과 각계 인사들, 언론들에서 환영과 지지의 목소리가 높게 울려나오고 있다.

남조선의 야당인 민주당은 28일 기자회견을 가지고 공화국에서 제안한 회담이 필요하다는 립장을 국회외장에 전달했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지난번에 여야가 합의한 《남북관계개선평화위원회》가 《국회》내에 조속히 구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대변인도 론평을 통해 지금 중요한 것은 남북회담을 위한 실천적 움직임이라고 하면서 조속한 시일내에 회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다.

민주당의 최고위원들도 성명을 발표하여 북의 회담제

안을 환영하였다.

그들은 현재 북남고위급군사회담을 위한 실무회담 개최문제가 협의중인 상황에서 이번 제의는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하면서 이 기회를 놓치면 또다시 전쟁을 걱정해야 하는 위기상태에 내몰리게 되므로 적대를 넘어 평화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무조건적, 전면적인 대화를 다시 한번 여당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북측이 제안한 남북회담을 통일부가 거부한것에 대해 이것은 리명박 《정부》의 《국회》에 대한 정시와 무시의 표현이라고 불만을 표시하면서 회담수락여부는 국회에서 우선 논의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남조선의 《통일뉴스》를 비롯한 인터넷신문들도 글들을 발표하여 공화국의 회담제의를 지지하면서 당국이 대화와 협상을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본사기자

북남대결상태를 끝장내야 한다 (1) 《성실한 자세에서 대화에 적극 립해야 한다》

북남대결상태를 하루빨리 끝장내는 것은 겨레의 한결같은 의사이고 조성된 정세와 시대의 엄숙한 요구이다.

남조선에서도 비정상적이고 위험천만한 동족대결상태를 끝장내고 화해와 평화, 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기 위한 목소리가 끊임없이 울려나오고 있다.

본사편집국은 남조선 각계의 이러한 목소리들을 《북남대결상태를 끝장내야 한다》라는 고정표제 아래 지면에 계속 담아낸다.

지난 1월 18일 남조선의 민주민생평화통일추진연대는 평화선언을 발표하여 당국이 동족대결을 부추기는 비방과 중상, 전쟁연습을 걸어서 하루빨리 북과 남의 대화와 협력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온 겨레가 조선반도의 평화번영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자고 호소하였다.

남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도 성명을 발표하여 당국이 북의 대화제의를 이리저리한 조건을 내세우며 거부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며 민족적립장에 서서 그것을 시급히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였다.

전국교수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등에 소속된 수백명의 전직, 현직교수들은 《전쟁방지와 평화정착》을 바라는 교수선언문》이라는 제목의 공동선언에서 남

조선당국이 더이상 전쟁을 부추기지 말고 전쟁방지와 평화체제구축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면서 《비핵, 개방, 3000》을 내걸고 차단시켰던 북남대화를 즉시 재개하여 《금강산관광개과 경제교류확대, 고위급회담추진, 평화유선선포》 등 전쟁방지와 평화보장에 도움이 되는 일을 적극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와 민주당, 민주노동당의 정책연구기관들인 민주정책연구원과 새세상연구소 등은 성명과 담화를 통하여 당국이 대화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친인》 호사건은 남측이 먼저 의문점부터 명백히 공개해야 할 문제이라고 하면서 북이 모든 의제들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립장을 밝힌것만큼 《정부》도 성실한 자세와 립장에서 대화에 적극 립해

야 한다고 하였다.

뿐만아니라 《한국진보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전 통일부 장관들은 당국이 북의 대화제의를 거부하면 종당에는 민족의 운명과 통일론의가 강대국의 손락에서 돌아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대화마당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외에도 남조선의 《대북전문가》들은 북의 《해폐기》만을 일방적으로 요구할 것이 아니라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철저한 비핵화를 실현하는 문제를 가지고 북과 남이 주동적인 논의를 벌려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북남대화과 교류협력의 성과를 거두자면 리명박 《정부》가 《흡수통일》 정책을 버리고 6.15공동선언리행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하였다.

본사기자 최명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에서 남조선통일부에 통지문을 보내었다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에서는 1월 31일 남조선통일부에 북남대화들을 조속히 개회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문을 보내었다.

통지문은 이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연합성명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담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호소문을 통하여 북남당국회담을 비롯한 북남대화들을 진행할 것을 제의한데 대해 지적하고 우리 군대의 대병하고 주동적

을 통하여 북남당국회담과 적십자회담을 비롯한 북남대화들을 진행할 것을 제의한데 대하여 지적하고 우리 군대의 대병하고 고위급군사회담제로 북남대화의 장애물들이 모두 제거되게 된 조건에서 이제는 북과 남의 당국이 마주앉아 진지하고 건설

적인 대화를 할 때가 되었다고 통지하였다.

통지문은 북남대화들을 통하여 훌륭한 가족, 친척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문제들과 생방이 관심하는 모든 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 해결해나갈 것을 다시금 남측에 요구하였다.

북측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남조선적십자사 총재에게 편지를 보내었다

북측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1일 남조선적십자사 총재에게 편지를 보내었다.

편지는 최근 우리가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연합성명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담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호소문을 통하여 북남당국회담을 비롯한 북남대화들을 진행할 것을 제의한데 대해 지적하고 우리 군대의 대병하고 주동적

인 제의로 북남고위급군사회담이 열리게 된 조건에서 쌍방적십자단체들이 마주앉지 못할 리유와 조건이 없다고 강조하였다.

편지는 북남적십자회담을 2월 1일 문산에서 가질 때 대한 우리의 제의에 남조선적십자사가 아직까지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는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회담날자를 다시 협의하여 최대한 빠

른 시일안에 개최할 것을 요구하였다.

끝으로 편지는 남조선적십자사가 우리의 동포애적인 결단과 선의의 조기에 화답하여 북남사이의 인도주의 문제들을 하루빨리 협의, 해결함으로써 다가오는 봄부터 훌륭한 가족, 친척상봉사업이 다시 시작되게 되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본사기자

조로 외교관들 조선반도정세, 6자회담 재개문제와 관련한 의견 교환

1일 모스크바에서 로씨야 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사관 공사참사와 로씨야외무성 아시아 1국 부국장이 만나 조선반도정세와 6자회담재개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조선측은 전조선반도비핵화를 실현하며 평등의 정신,

동시행동원칙에 따라 9.19공동성명을 전면적으로 리행해나가기에는 현행 립장과 의지를 다시금 밝혔다.

로씨야측은 조선의 평화적 핵활동리행은 인정하고 로씨야가 조선의 농축우라니올생산문제를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심의하는것을 반대

하지 않는다는 일부 보도수단들의 보도는 로씨야의 공식 립장이 아니라 확인하였다.

쌍방은 조선반도정세완화와 6자회담재개를 위하여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본사기자

지금 내외의 관심은 북남대화의 성과적진전여부로 쏠리고 있다.

공화국의 성의있고 야망있는 대화제의로 시종일관 약화되어오던 북남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기회가 조성된 것은 내외여론의 지지와 환영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에서는 대화의 분위기를 해치는 불순한 움직임들이 벌어지고 있다.

얼마전 남조선당국은 서울에 온 미국무성 부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그 무성 우라니올농축문제를 꺼내며 유엔안전보장리사회 회부를 예결하였다. 그런가하면 남조선의 《인권위원회》도 《2011년 업무계획》이라는에서 《북인권문제》를 운운

하면서 이에 대한 《국제공조》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

북남대화가 일정에 올라있는 지금 남조선당국이 대화상대방을 모욕하고 압박하기 위한 국제적인 모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고있는 것

한데 대한 의지도 이미 명백히 천명하고 있다.

따지고보면 조선반도에서 핵문제 발생의 근원은 미국의 반공화국적대시정책과 핵위협에 있다. 이것이 제거되지 않는 한 핵문제해결이 이루어질 수 없다.

공화국의 우라니올농축사업으로 말하면 평화적인 핵동력을 마련하기 위한것으로서 주권국가의 당당한 자주권리이다.

공화국은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도 이미 명백히 천명하고 있다.

따지고보면 조선반도에서 핵문제 발생의 근원은 미국의 반공화국적대시정책과 핵위협에 있다. 이것이 제거되지 않는 한 핵문제해결이 이루어질 수 없다.

공화국의 우라니올농축사업으로 말하면 평화적인 핵동력을 마련하기 위한것으로서 주권국가의 당당한 자주권리이다.

공화국은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도 이미 명백히 천명하고 있다.

따지고보면 조선반도에서 핵문제 발생의 근원은 미국의 반공화국적대시정책과 핵위협에 있다. 이것이 제거되지 않는 한 핵문제해결이 이루어질 수 없다.

공화국의 우라니올농축사업으로 말하면 평화적인 핵동력을 마련하기 위한것으로서 주권국가의 당당한 자주권리이다.

공화국은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도 이미 명백히 천명하고 있다.

따지고보면 조선반도에서 핵문제 발생의 근원은 미국의 반공화국적대시정책과 핵위협에 있다. 이것이 제거되지 않는 한 핵문제해결이 이루어질 수 없다.

공화국의 우라니올농축사업으로 말하면 평화적인 핵동력을 마련하기 위한것으로서 주권국가의 당당한 자주권리이다.

공화국은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최근 남조선에서 주요 정치문제들을 둘러싸고 정치세력들간에 갈등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 특히 《헌법》 개정문제, 립시 《국회》 개헌문제, 《국회》 의원 및 도지사 재선문제 등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한나라당》 사이, 《한나라당》 내부의 계파들사이, 여야사이의 대립이 첨예해지는 등 내부혼란이 심해지고 있다.

지난달 개헌과 관련한 어

는 한 모임에서 리재오특임장관은 《시대에 맞는 정치선거, 정당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회적갈등은 줄어들지 않는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지금까지 재오와 《한나라당》 수석부대표는 《분권형대통령제》 등의 《개헌》을 강하게 들고나오면서 정책립을 내놓고, 세력구합에 나선

다 하면서 분주함을 피우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 안의 다른 계파는 《헌법》 개정에 부정적인 립장을 표시하고 있다.

경기도지사 김문수는 실현가능성이 없는 《헌법》 개정안을 다음에 《정권》에 넘기자고 하면서 이를 반박하고 있다. 그들은 구제역 때문에 지역경제악화에 대한 우려가

어질수 없다는 것은 자라가 공인하는 사실이다.

현실이 이리함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이 핵문제발생의 근원도 똑똑히 모르면서 미국과 함께 동족을 모욕하고 압박하기 위한 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리는 것은 결국 조선

반도에서의 핵문제해결과정에 난관을 조성하고 비핵화를 방해하는 행위이다.

남조선당국이 반공화국 《인권》 소동에 계속 열을 올리는 것도 구태의연한 동족대결정책의 산물로서 북남관계악화를 부채질하는 용납 못할 범죄이다.

압력과 제재는 공화국에 절대로 통할수 없으며 조선반도의 엄중한 사태를 타개하는 유일한 방도는 성실한 대화밖

남조선당국은 시대착오적인 대결관념에서 벗어나야 하며 대화의 흐름에 역행하는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

주 광 일

땀만 겨울추위가 한창인 요즘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뽀뽀한 토장죽이다. 구수한 된장국물에 시래기와 감자 등을 넣고 고추가루를 곁들여 푹 끓인 토장죽을 땀을 철철 흘리며 맛있게 먹었다면 온갖 피로가 사라지고 한겨울추위도 어느새 물러가는 것만 같다.

식사를 사양하던 손님도 얼얼한 토장죽냄새를 맡고선 스스로없이 주인의 청에 응하는 것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의 식생활문화와 관련된다.

된장은 우리 민족의 뛰어난 지혜와 창조력, 독특한 식생활문화를 특징짓는 우수한 민족식품으로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오랜 전통으로부터 고려왕조까지의 역사를 서술한 《해동역사》에는 발해의 명산품으로 《콩을 소금과 짝지어 어두운 곳에서 발효시킨 시》라고 서술했다.

역사학자들은 《시》는 씨장, 된장, 또는 찜맛의 메주 덩어리라고 하고 있는데 덕후리의 고구려벽화무덤에 있는 묘지명에 《맑은 사람을 동인지키 큰 공사를 벌였는데 흰쌀밥, 고기, 술과 함께 장도 먹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고구려시기에 벌써 장이 선조들의 식품이

장 과 우리 민족

이 장을 단순히 민족음식의 한가지로서만이 아니라 한 집안의 길흉을 결정하는 것으로까지 보면서 귀하게 여기었다.

된장은 매 집에서 제각기 담그어 먹는 것으로 하여 그 방법과 맛이 집마다 독특했다고 한다. 장을 얼마나 맛있게 담그는가에 따라 그 집의 품위가 결정되었다고 하는 말도 있다.

이처럼 우리 민족의 식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된장의 고유한 맛을 음미해보는다면 우리 민족의 우수한 기질을 알 수 있다.

된장이 음식의 맛을 내는 데서 가장 으뜸이라는 의미에서 《말진미》, 약효가 높다고 하여 《말방약음식》이라고도 불리었다.

우리 선조들은 쌀을 밥도 있는 집안에 시집보내려면 33가지 장담그는 법을 익혀 가지고 가야 한다고 하였는데 《말담은 집은 장맛도 쓰다.》, 《뚝배기보다 장맛》 등의 속담에서도 알 수 있듯



같이 아름답다고 하여 비봉폭포라고 불리었다. 세존봉의 서쪽비탈면에 있다. 비봉폭포의 두리에는 천화대를 비롯한 금강산의 이름난 봉우리와 무봉폭포가 있다.

아름다운 조국강산

구룡폭포

구룡폭포는 세계적명승지인 금강산의 구룡연팔짜기에 있다. 증향폭포라고도 한다. 74m의 높이를 가진 구룡폭포는 설악산의 대송폭포, 개성의 박연폭포와 함께 우리나라 3대명폭포의 하나로 일러왔으며 십이폭포, 비봉폭포, 옥영폭포와 함께 금강산의 4대폭포의 하나로 일컫는다. 폭포벽과 그 바닥이 하나의 웅장한 화강암벽으로 되어있는 보기 드문 폭포이다. 화강암절벽에 매년 우묵한 곳으로부터 은빛물방울을 흘리면서 쏟아지는 폭포는 매우 황홀하다.

십이폭포

외금강의 송림사굴에 있는 십이폭포는 높이 289m, 너비 4m로서 금강산에서 가장 높은 폭포이다. 높은 벼랑을 열두번 꺾어서 층층으로 잇달아 떨어지는 폭포라고 하여 십이폭포라고 한다. 그 가운데서 제일 높은 것의 높이가 80m, 작은 것이 16m이다.

옥영폭포

폭포의 높이가 31m, 너비가 3m인 옥영폭포는 햇빛이 아침 한때에만 눈부시게 비쳐들어 폭포풍경이 특이하게 아름다와 이전에는 조양폭포라고 불리었다고 한다.

옥영폭포는 금강산의 높은 봉우리의 비로봉의 북서쪽 진부골을 따라 흘러내린 맑은 물이 층암절벽을 떨어져서 이루어진 폭포이다. 물이 떨어지는 곳은 넓이 200여㎡의 깊은 소가 있다. 폭포두리에는 나무들이 우거져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다.

금강산의 4대 폭포

비봉폭포

외금강의 옥류동팔짜기에 있는 폭포이다. 폭포의 높이는 139m, 너비는 4m로서 마치 봉황새가 긴 꼬리를 휘저으며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

비봉폭포

외금강의 옥류동팔짜기에 있는 폭포이다. 폭포의 높이는 139m, 너비는 4m로서 마치 봉황새가 긴 꼬리를 휘저으며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

비봉폭포

외금강의 옥류동팔짜기에 있는 폭포이다. 폭포의 높이는 139m, 너비는 4m로서 마치 봉황새가 긴 꼬리를 휘저으며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

음상에 이 따르는 식사방법

① 기진맥진할 때에는 락화생, 살구씨, 호두와 같은 견과류를 먹으면 좋다. 또한 대황조개죽, 시금치명채, 깨, 딸기 등도 좋다.

② 사무살에 계속 앉아 있을 때에는 시력이 나빠질 수 있는데 비타민 A를 섭취하면 시력감퇴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뱀장어, 부추와 돼지간을 함께 볶은 음식이 좋다.

③ 기분이 나쁠 때에는 소젓, 찐살, 치즈와 같은 젓제품, 말린 새끼물고기 등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 그것은 칼슘이 기분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④ 마음이 초조할 때에는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는 가두배추, 꽃가두배추, 시금치, 파인 등이 좋다. 그것은 비타민 C가

심리적압박감을 해소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⑤ 술을 마실 때에는 물고기, 고기, 닭알, 두부, 치즈 등 단백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물이 좋다.

술을 마시기 전에 소젓을 하고부 마시면 위도 보호하고 술에 취하는 정도도 감소시킬 수 있다.

단편소설 아버지의 약속 (4)

글 량 홍 일, 그림 허 은 혁

제대되어 고향하늘이 바라 보이는 강령마을에 뿌리박고 사는 강영도 일찍이 시골학교 세해째되는 어느날, 평양에서 대학을 다니는 김성각이 찾아왔다. 아무달, 아무날에 이 동생이 결혼식을 하니 꼭 와달라는 것이었다. 북에 친척도 없는 경필이라 하니까에 없는 동생전치야 만사를 제쳐놓고 간다고 장담하였다.

그날이 오자 경필은 큰 상에 놓을 꽃게 회갑으로 제격인 넝치(망어)를 한접이도 평양으로 올라갔다.

홍부동팔짜에 있는 자기만한 단추주머니에 들어서니 낯익은 성각의 어머니가 버선발로 달려와서 맞이해주었다. 헌데 신랑청약인 김성각은 없고 별로 집안이 웅성거리는 듯이 보였다. 전후의 어려운 살림이라 잔치판들 뒤

있으랴만 그래도 친척들이 와있을 게 아닌가. 이상하여 묻는 경필에게 어머니는 제 집처럼 마음을 푹 놓고 기다리라고, 성각이가 학교에 갔는데 저녁에 온다고 했다.

날이 어두워 밖에서는 함박눈이 펄펄 쏟아졌다. 그때에야 마당에서 약자질 떠드는 소리가 나더니 성각이 동무들 셋을 데리고 나타났다. 일일이 통성하고 웃고 떠들며 저녁상을 마주했는데 경필이가 가지고 온 넝치, 꽃게가 거기에 올라있었다. 손님들이라 억지웃음을 지으며 어울렸는데 그들은 다 전쟁에 참가한 제대군인들이었다. 개죽은 첫눈에 띄우는 눈이 억지실실하고 활달해보이는 처지도 있었는데 그 역시 의용군으로 조국해방전쟁에 참가했다는

비리고 기름진 냄새를 제거한다는 《불심》에 비유할 수 있다. 정과 사랑으로 주변사람들의 용이리진 마음을 풀어주는 선량함은 매운 맛을 부드럽게 만든다는 뜻의 《선심》에 비유할 수 있다.

고골에 가져다대야 고유한 향을 느낄 수 있는 음식보다 온 주위에 후텁게 퍼져가는 냄새로 보나 기름진 육도 량스럽게 하는 색으로 보나 장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자랑품의 자랑이다.

오늘 노래 《토장의 노래》는 공화국인민들 누구나 사랑하고 즐겨부르는 노래로 되고 있다.

세상에 나서 발음을 들 때 처음으로 맛들면 것은 내 어머니가 메주를 쑤어 손수 담근 토장이었네 민족의 향기 넘치어나는 그 맛은 정말 별맛이라네 아—우리네 토장 그저 그만 그저 그만 ...

오랜 세월 우리 겨레의 생활속에 깊숙이 뿌리내린 조선장. 조선장이 세계적인 식품으로 널리 퍼져가고 있는 오늘 우리 조국이 강성대국의 위용을 떨치며 세계 앞에 우뚝 설 날이 다가오고 있다.

선조들의 겨울철 생활풍습 몇가지

우리 선조들은 예로부터 화기에 예하고 다정다감하며 민족적정서가 넘치게 그리고 주어진 생을 활활하게 맞게 생활을 자기 식으로 꾸려왔다. 야궁이에 불을 지펴 방을 덥히던 지난날 우리 조상들에게 있어서 정서의 구심점은 화로였다. 추운 겨울밤 화로가 있는 정도 모이고 야궁이도 모이고 추억도 모인다고 하였다. 늙은이들은 질화로를 끼고 부저가락으로 재를 저으면서 젊었을 때의 이야기가 꽃을 피웠다. 가정의 밤을 지을 때 지금과 같이 성냥이나 라이타 같은 것이 없었던 우리 조상들은 반드시 조상대대로 죽이지 않고 보존해온 불씨로 불을 지펴왔다. 그래서 집집마다 불씨 화로가 따로 있었다. 이렇듯 화로는 특별히 공동체의식이 강했던 우리 선조들에게 있어서 그 의미가 류달리 각별하였다.

우리 선조들의 겨울철 생활풍습에는 아래목이 야기도 있다. 우리 나라의 고유한 겨울철 생활풍습에는 아래목이 야기도 있다. 우리 나라의 고유한 겨울철 생활풍습에는 아래목이 야기도 있다.

우리 선조들은 예로부터 화기에 예하고 다정다감하며 민족적정서가 넘치게 그리고 주어진 생을 활활하게 맞게 생활을 자기 식으로 꾸려왔다. 야궁이에 불을 지펴 방을 덥히던 지난날 우리 조상들에게 있어서 정서의 구심점은 화로였다. 추운 겨울밤 화로가 있는 정도 모이고 야궁이도 모이고 추억도 모인다고 하였다. 늙은이들은 질화로를 끼고 부저가락으로 재를 저으면서 젊었을 때의 이야기가 꽃을 피웠다. 가정의 밤을 지을 때 지금과 같이 성냥이나 라이타 같은 것이 없었던 우리 조상들은 반드시 조상대대로 죽이지 않고 보존해온 불씨로 불을 지펴왔다. 그래서 집집마다 불씨 화로가 따로 있었다. 이렇듯 화로는 특별히 공동체의식이 강했던 우리 선조들에게 있어서 그 의미가 류달리 각별하였다.

우리 선조들의 겨울철 생활풍습에는 아래목이 야기도 있다. 우리 나라의 고유한 겨울철 생활풍습에는 아래목이 야기도 있다. 우리 나라의 고유한 겨울철 생활풍습에는 아래목이 야기도 있다.

우리 선조들은 예로부터 화기에 예하고 다정다감하며 민족적정서가 넘치게 그리고 주어진 생을 활활하게 맞게 생활을 자기 식으로 꾸려왔다. 야궁이에 불을 지펴 방을 덥히던 지난날 우리 조상들에게 있어서 정서의 구심점은 화로였다. 추운 겨울밤 화로가 있는 정도 모이고 야궁이도 모이고 추억도 모인다고 하였다. 늙은이들은 질화로를 끼고 부저가락으로 재를 저으면서 젊었을 때의 이야기가 꽃을 피웠다. 가정의 밤을 지을 때 지금과 같이 성냥이나 라이타 같은 것이 없었던 우리 조상들은 반드시 조상대대로 죽이지 않고 보존해온 불씨로 불을 지펴왔다. 그래서 집집마다 불씨 화로가 따로 있었다. 이렇듯 화로는 특별히 공동체의식이 강했던 우리 선조들에게 있어서 그 의미가 류달리 각별하였다.

우리 선조들의 겨울철 생활풍습에는 아래목이 야기도 있다. 우리 나라의 고유한 겨울철 생활풍습에는 아래목이 야기도 있다. 우리 나라의 고유한 겨울철 생활풍습에는 아래목이 야기도 있다.

교사성구품이 아래말 끈이들을 말 없다

두 미남자가 있었다. ...고국천왕때 성안에 장공, 유공 두 친구제상이 있었다. 물이 다 온 장안이 아는 미남이었는데 유공이 더 미남이었다. 한번은 장공이 겨울앞에서 부인에게 물었다. 《나하구 유공하구 누가 더 미남이지?》 《원, 물은 나마나지요. 대감이 월등 더 미남이지요.》 그래? 조화라. 이 사람은 유공의 인물을 잘 아는 사람인데?... 이번엔 트락을 건너 결방(침의 방)으로 갔다. 《누가 더 미남이지?》 너인은 손까지 들었다놓으며 《아휴, 어렵이나 있어요. 대감이 한참 더 미남이지요.》 허... 왜 나를 속일까? 언젠가는 저들끼리 속삭이게 《유공이 성안에서 일씩 미남자야!》 하던 녀자가 아닌가. ... 내친 걸음에 이번엔 사랑방 손님한테로 갔다. 《유공하구? 어렵이나 있습니까? 대감이 봉황이라면 저쪽은 닭이라구나 할가

민속놀이

원 그 리 기

여러 민속놀이가운데는 원그리기도 있다. 놀이장은 평탄한 마당에 출발선을 두고 거기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사이두고 돌아오는 곳을 정하면 된다. 놀이도구는 땅우에 선을 그릴 수 있는 20cm정도의 가느다란 막대기이다. 놀이는 참가한 인원들을 두원으로 나누어 신호에 따라 한명씩 막대기를 잡고 땅우에 약속된 회수만큼 원을 그리며 돌아오는 방향으로 돌면서 놀이한다. 원그리는 출발선 앞에서 할수도 있고 돌아오는 곳에서 할 수도 있다. 민속놀이 원그리는 어린이들에게 달리기능력과 몸의 중심을 잡는 능력을 키워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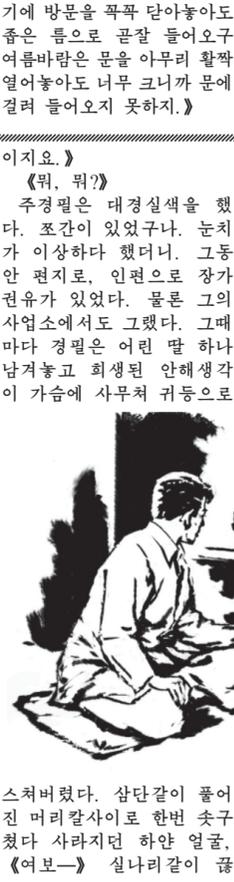
겨울바람과 여름바람

형: 《겨울바람은 작고 여름바람은 크니라.》
아우: 《그러기야 있겠어요?》
형: 《보렴. 겨울바람은 작이지요.》
《뭘, 뭘?》
주경필은 대경실색을 했다. 쪼간이 있었더니. 눈치가 이상하다 했더니. 그동안 편지로, 인편으로 장가 권유가 있었다. 물론 그의 사업소에서도 그랬다. 그때마다 경필은 어린 딸 하나 남겨놓고 회생전 안해생각이 가슴에 사무쳐 귀등으로

단편소설 아버지의 약속 (4)

이지요.》
《뭘, 뭘?》
주경필은 대경실색을 했다. 쪼간이 있었더니. 눈치가 이상하다 했더니. 그동안 편지로, 인편으로 장가 권유가 있었다. 물론 그의 사업소에서도 그랬다. 그때마다 경필은 어린 딸 하나 남겨놓고 회생전 안해생각이 가슴에 사무쳐 귀등으로

유모아



어디던 마지막 목소리, 아아, 파도소리... 비소리... 총성... 울부짖는 아우성소리... 《난 가겠네.》 주경필이 울쩍 일어섰다. 김성각은 그의 팔을 꼭 잡았다. 그의 입에서는 처음 듣는 땀 흘린 음성이 튀어나왔다. 《마음대로 하시우. 그러

어디던 마지막 목소리, 아아, 파도소리... 비소리... 총성... 울부짖는 아우성소리... 《난 가겠네.》 주경필이 울쩍 일어섰다. 김성각은 그의 팔을 꼭 잡았다. 그의 입에서는 처음 듣는 땀 흘린 음성이 튀어나왔다. 《마음대로 하시우. 그러

어디던 마지막 목소리, 아아, 파도소리... 비소리... 총성... 울부짖는 아우성소리... 《난 가겠네.》 주경필이 울쩍 일어섰다. 김성각은 그의 팔을 꼭 잡았다. 그의 입에서는 처음 듣는 땀 흘린 음성이 튀어나왔다. 《마음대로 하시우. 그러